

元曉의 修道處에 대하여

文 暻 鉉 *

〈目 次〉

- | | |
|------------------|--------------------------|
| 머리말 | ㄹ. 高仙寺 |
| 1. 受學處 | ㅁ. 初開寺 |
| ㄱ. 孤大山 普德門下 | ㅂ. 娑羅寺 |
| ㄴ. 靈鷲山 朗智門下 | ㅅ. 佛光山 擲板庵과 千聖山(元曉山) 內院寺 |
| ㄷ. 雲梯山 惠空門下 | 4. 悟道處 八公山 |
| ㄹ. 大安大師 門下 | ㄱ. 佛窟寺 |
| 2. 修道處 | ㄴ. 元曉庵 |
| ㄱ. 扶安 邊山 蘇來寺 元曉房 | ㄷ. 修道庵 |
| ㄴ. 廣州 高湊 城山 蘭若 | ㄹ. 中巖石巖 |
| ㄷ. 檣山 蘭若 | ㅁ. 中巖庵 |
| 3. 住錫寺刹 | ㅂ. 石窟庵 |
| ㄱ. 芬皇寺 | 맺음말 |
| ㄴ. 皇龍寺 | |
| ㄷ. 穴寺 | |

머 리 말

한국 역사상 제일의 高僧인 元曉大師에 관한 傳記는 『三國遺事』卷第4 義解第5 元曉不羈조에 출생지를

押梁郡南 佛地村北 栗谷娑羅樹下 村名佛地 或作發智村

이라 쓰여 있다. 그러나 그의 生長 과정과 出家 동기와 그 시기 및 師資傳承관계와 修道處에 관하여는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普覺國尊 一然禪師는 『삼국유사』에서

* 慶北大學校 人文大學 敎授

其遊方始末과 弘通茂跡은 唐傳과 行狀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므로 갖추어 실지 않겠다. 그러나 오직 鄉傳의 한두가지 틀리는 사실만을 기재한다.

고 했다. 일연은 당시 세상에 流行하던 대사의 행장과 唐傳(이것은 『宋高僧傳』을 말한다)이 있어 굳이 번거롭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향간에 전하는 한두 가지 殊異한 사실만을 다루어 소개했던 것이다.

원효의 수도처에 관한 기록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삼국유사』와 『大覺國師文集』 『東國李相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金石總覽』 등에서 원효의 수도처에 관한 片鱗이나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원효의 고향인 慶山군에 소재한 八公山 일대에서 道俗間에 전승되는 원효 수도처에 관한 現場的 답사에서 원효의 수도처에 관하여 千年傳承의 處所를 찾을 수 있었다.

원효의 修道處 住錫處 開創寺院에 관한 기록과 緣起는 영남 일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동 경기 관서 일대에 廣布되어 있다. 이들 수십군데에 散在한 원효와 연관된 寺刹은 모두 다를 믿을 수는 없다. 전국의 각 사찰이 그들 사찰의 沿革을 만들 때 그 初建 유래를 淵古하게 과시하기 위하여 고승의 창건 緣起를 만들어 절의 격을 높여 장식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원효 연관의 창사 연기가 생기게 되었다.

이번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의 논제가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라 元曉의 수도처, 그중에 가장 원효와 인연이 있는 수도처를 고찰코자 하는 것이 이 원고를 계획하는 목적이다. 그들 수도처에 관하여도 考證上 거의 확실시된다고 여기는 곳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해 보겠다.

본고에서 수도처라 함은 원효의 출생 성장 주석 수도 창건 受業 開山등 一切의 원효와 연관된 곳을 포괄한다. 이로써 신라 명승 원효의 사적연구에 다소나마 비보가 된다면 본고를 기도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된다 하겠다.

1. 受學處

원효의 師資相承 관계를 알 수 있는 史料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삼국유사』

에서는 生而穎異 學不從師⁽¹⁾라 한데 대하여, 『宋高僧傳』에서는 ‘隨師稟業遊處 無恒’⁽²⁾이라 하고, 『新修科分六學僧傳』에는 ‘隨師遊學無常處’⁽³⁾라 하였으며, 『諸師製作』目録에서는 興輪寺 法藏門人이라 했다.

이 諸書중 가장 原初의 사료는 『宋高僧傳』과 『삼국유사』다. 『송고승전』은 宋太宗 端拱元年(988)에 贊寧이 지은 것으로 중국측의 史料로는 가장 원초적 기본적인 것이다. 이 책 보다 1세기 뒤에 간행된 『林門錄』과 元代에 편찬된 『新修科分六學僧傳』 등은 元曉 傳記를 씬에 『宋高僧傳』에서 史料를 取하여 轉載한 것이다. 전제중에 표현 記述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宋高僧傳』이 표준이 되는 기본 사료라고 하겠다.

『宋高僧傳』에 의하면 元曉가 ‘非髮之年 惠然入法’이라 했으니 10살 무렵에 沙門에 출가했다고 보겠다. 그 때 그는 어느 사찰의 승려에 投託해서 剃髮하고 그 門下에서 受業하고 다시 具足戒도 받았을 것이니 學不從師란 있을 수 없다. 興輪寺 法藏門人이라한 法藏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568년(진흥왕 29)에 세운 眞興太王巡狩管境碑의 黃草嶺碑와 摩雲嶺碑에 隨駕 臣僚의 이름 머리에 沙門道人 法藏 慧忍이 있다. 이 法藏이 注目된다. 국왕의 순수에 수행한 法藏은 평범한 중은 아니었다고 본다. 36살의 젊은 왕을 따라 마운령 황초령까지 險峻한 敵地에 拓境한 輿地까지 隨駕한 승려는 역시 2, 30대의 젊은 年富力 강한 승려였다고 보아야겠다. 그리고 이 道人이 어느 절에 住했던가는 알 수 없으나 興輪寺에 住했다고 봄에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진흥왕 5년에 창건한 신라 최초의 대가람으로 왕 10년엔 入學僧 覺德과 梁使가 가져온 佛舍利를 흥륜사 앞에서 奉迎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興輪寺에 奉安했다고 본다.

皇龍寺는 진흥왕 14년에 창건되나 왕 35년에 丈六佛을 조성하기 전에는 흥륜사에 比견할 바가 아니었다. 선덕여왕 시대 九層塔을 세우고 창건이 완성된 후에야 황룡사가 王京 第一伽藍이 되었다. 진흥왕 29년까지는 大(王)興輪寺가

(1) 『삼국유사』 권제4, 義解제5 元曉不羈조.

(2) 宋天壽寺贊寧勅撰, 『宋高僧傳』 卷第4, 唐新羅國皇龍寺元曉傳에 非髮之年 惠然入法 隨師稟業 遊處無恒

(3) 『新修學科分六學僧傳』 卷28에 隨師遊學無常處

제1가람이었다. 이 절에 住持로 있던 法藏에 元曉가 師資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만하다.

원효의 출생이 617년(진평왕 39)이다. 원효가 출가했다고 보는 나이 卅歲之年을 10살이라 할 때 626년(진평왕 48)은 법장이 수가한 진흥왕 29년으로 부터 58년 뒤다. 이때 법장이 20, 30대였다면 그의 나이가 80내지 90세였다고 본다. 원효의 出家 나이와 법장의 享齡이 무리가 아닐까 싶은 감이 없는 바 아니다. 원효의 출가연령을 10살로 잡는데는 무리가 아니다. 審希 道憲 無染이 9살에 출가했으며 眞表가 12살 圓光이 13살에 入沙門했다. 體澄은 齠齠之歲에 沙門에 投託했으니 6살 쯤이 된다.

高僧의 傳記나 塔碑文에서 보면 出家年齡을 어린나이는 齠齠之歲라하고 그보다 한층 위는 卅歲之年이라 하고 그보다 한층 위는 志學之年(歲)이라하고 그 한층위는 冠年(歲)라 했다. 정확히 나이를 적을 때는 十有七이니 十三이니 했다. 齠齠之年은 이를 갈 나이인 6살을 말하며 관채는 머리를 두 개로 따아 묶을 나이이니 10살, 志學은 15살, 冠은 20살로 보겠다.

享年도 圓光이 99살 無染이 89이었던 것을 볼 때 法藏이라고 9旬이 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이로써 볼 때 원효가 法藏의 門下에 들어갈 수는 있었다고 보겠다. 『삼국유사』에 원효가 나서부터 천재라 스승을 좇아 배우지 않았다는 표현은 원효를 生而知之로 만든 신격화의 소산이다. 후세에 원효의 숭배가 갈수록 높아지자 지어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록에서는 스승이 없이 스스로 독학했다고 한데 대하여 중국의 기록에는 스승을 좇아 여러 곳에서 배웠다고 했다. 이것은 원효의 受學 사실이 왜곡되기 이전의 사료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스승이 없이 배웠다는 것은 보통의 승려처럼 한 宗派의 受學으로 그 宗派學統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원효는 諸宗百般에 通達한 것으로 스스로 精進工夫한 결과인 때문이다. 이점에서 그는 上下千古에 孤往獨步하는 天才였다.

그러나 스승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삼국유사』의 기사에서도 그가 수학한 스승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學不從師’ 했다는 것은 모순을 면치 못한다. 원효는 生而知之도 아니었고 受業한 師傅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諸經의 疏와 宗要를

지은 것을 보면 여러 宗門의 高僧碩德에 師事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ㄱ. 孤大山 普德門下

祐世 僧統 大覺國師義天의 글을 보면 到盤龍山延福寺禮普德聖師飛房舊址란 시에

飛房靈迹瞻南地 舊隱遺蹤禮此間
浮石芬皇曾問道 慨然長想未知還⁽⁴⁾

라는 시와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이라 題한 시에

涅槃方等教 傳授自吾師
兩聖橫經日 高僧獨步時
從緣任南北 在道絕迎隨
可惜飛房後 東明古國危⁽⁵⁾

란 시가 있다. 이 詩中 兩聖橫經日이란 시귀의 分注에

元曉義湘嘗從吾聖師稟涅槃維摩等經⁽⁶⁾

이라 했다. 崔滋는 『補閑集』 卷下에 義天의 「到飛來方丈禮普聖師云」라 題한 위의 詩를 싣고 兩聖橫經日이란 시귀에 分注를 달아

元曉義湘受涅槃維摩經於師

라했다.⁽⁷⁾ 義天의 앞 詩에서 浮石芬皇曾問道란 시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浮石은 浮石寺 창건 祖師인 義湘을 지칭하며 芬皇은 芬皇寺에 住錫하여 『華嚴經疏』를 纂述한 원효를 지칭한다. 『삼국유사』 권제3 興法第3 原宗興法狀 觸滅身조에 他方菩薩出現於世란 分注에서 ‘芬皇之陳那 浮石寶蓋라 하였다. 이와 같이 원효하면 芬皇이요 義湘이라 하면 浮石을 의미했다.

(4) 『大覺國師文集』 卷第19 詩.

(5) 위의 책, 권제17 詩.

(6) 筆者가 復元校正한 것임.

(7) 崔滋, 『補閑集』 卷下

이와 같은 兩聖受學 사실은 원효와 의상이 함께 孤大山 景福寺로 飛來房丈에 찾아가서 普德聖師에게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웠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원효와 의상이 이곳에 와서 보덕에게 受學했는가를 살펴보겠다. 보덕화상이 고구리로부터 백제에 망명해온 시기를 보면 『삼국유사』 권제3 興法제3 寶藏奉老 普德移庵조에

時普德和尚住盤龍寺 憫左道匹正 國祚危矣 屢諫不聽 乃以神力飛方丈 南移于完州孤大山而居焉 即永徽元年庚戌六月也(又本傳云乾封二年丁卯三月三日也)

라 하고 『補閑集』에는 의천의 시에 分注하여

師本句高麗盤龍寺沙門 飛房至百濟孤大山 後神人見於句高麗馬嶺 告人曰汝國敗無日

이란 기사가 있어 『삼국유사』의 보덕기사와 같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보덕이 망명해온 연도를 永徽元年庚戌 6月이라 했다. 永徽는 唐 高宗의 年號로 650년 신라 선덕여왕4년 고구리 보장왕 9년 백제 의자왕 10년이다.

그러나 보덕의 망명해온 연도에 두설이 있었으니 本傳에는 乾封2년 丁卯 3月 3日이라 했으니 이것은 역시 唐 高宗의 年號로 667년 문무왕 7년 보장왕 26년이다. 백제가 661년 의자왕 21년에 망하니 백제가 망하기 전에 망명해 왔다면 650년 의자왕 7년이라야 한다. 일연선사도 650년이 맞는 것으로 쓰고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同 기사에서 ‘未幾國滅’ 기사의 分注에 「總章元年戊辰에 멸했으니 헤아리면 庚戌을 떨어지기 19년이다」라고 하여 보덕의 망명년도를 650년에 확정하고 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九年夏六月 盤龍寺普德和尚 以國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孤大山⁽⁸⁾

이란 기사가 있어 650년은 확정적이다.

그러면 의상과 원효가 唐에 간 연도를 따져 보겠다. 의상이 당에 간 연도는

(8) 『삼국사기』 권제22 고구리 본기 제10 보장왕 下 9년조.

『삼국유사』에서는 「義湘傳教」에서 永徽初年(650) 진덕여왕 4년⁽⁹⁾이라 하고 같은 책 「前後所將舍利」에서는 浮石本碑에 의거하여 龍朔元年⁽¹⁰⁾(661) 문무왕 1년이라 하였다. 『円宗文類』所載의 「海東華嚴初祖忌晨願文」에는 龍朔 2년이라 하고 『宋高僧傳』 「唐新羅國義湘傳」에는 總章 2년⁽¹¹⁾(669) 문무왕 9년이란 4說이 있다.

永徽初年說은 다음의 기사를 검토해 보면 『삼국유사』제권4 의해 제5 義湘傳教조에

年二十九 依京師皇龍寺落髮 未幾西圖觀化 遂與元曉道出遼東 邊戍邏之爲謀者 囚閉者累旬 僅免而還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 寓載入中國

라는 기사와 同제권3 塔像 제4 前後所將舍利 조에

按此錄義湘傳云 永徽初入唐謁智儼 然據浮石本碑 湘武德八年生 卅歲出家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有難廻 至龍朔元年辛酉入唐

이라는 기사를 상고할 때 浮石本碑(浮石寺에 있는 義湘의 碑)에 의하여 영취초년(650) 설은 의상이 원효와 더불어 당나라에 가려다 실패한 연도라고 보겠다.

그리고 총장 2년(669) 문무왕 9년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상은 당에 가서 終南山 至相寺 華嚴宗 太宗師 智儼의 門下에 나아가 受業했기 때문이다. 그의 受學 知儼門下는 同學인 法藏 賢首의 致書에서도 명백하다. 先師 智儼이 총장 1년에 入寂한다. 그러니 스승 지엄이 죽은 1년 뒤에 入唐해서는 지엄을 師傅로 섬겨 門下에서 受學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용삭 1년(661) 문무왕 1년이 맞다고 본다. 『円宗文類』所載 海東華嚴初祖忌晨願文의 용삭 2년은 의상이 長安 終南至相寺로 가서 智儼의 門下에 들어간 연도를 말한다. 의상의 史料로는 浮石本碑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겠다.

(9) 『삼국유사』 제권4 의해 제5 義湘傳教에 永徽初 會唐使舡有西還者寓載入中國 初止揚州

(10) 위의 책, 권3 塔像 제4, 前後所將舍利에 按此錄義湘傳云 永徽初 入唐謁智儼 然據浮石本碑 湘武德八年生 永徽元年庚戌 與元曉同伴欲西入 至高麗有難而廻 至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智儼 總章元年儼遷化 咸亨二年 湘來還新羅.

(11) 『宋高僧傳』 卷第4 「唐新羅國義湘傳」에 湘乃隻影孤征 誓死無退 以總章二年附商船達登州岸

이렇게 볼 때 원효와 의상이 普德을 찾아가 景福寺에서 受學할 수 있는 연도는 보덕이 亡命해 내려온 650년에서 의상이 入唐求法하는 661년(문무왕 1년) 앞뒤 기간이 되는 것이다. 650년 보덕이 백제에 망명해 오는 해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求法하러 갈려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해다. 이 때 원효의 나이 34살이었다.

이때 보덕의 망명 소식을 듣고는, 入唐은 如意치 않았던 터라 내친 걸음에 백제 孤大山에 가서 受學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승려는 일반인과 달라 山行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백제와의 전쟁 상태를 고려한다면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의상이 入唐하는 문무왕 1년은 백제가 멸망하는 해에 해당하니 이 때도 직전에 백제의 전쟁기에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650년~661년 11년간에 어느 시기일 것이며 그 시기는 오히려 650년이나 그 해에서 그리 멀지 않는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普德은 高僧으로 통일 신라에서 五敎의 하나인 涅槃宗을 開創한 祖師로 이름이 높았다. 大覺國師가 普德聖師의 飛來方丈을 찾아가서 聖師의 眞影에 예배드린 것을 볼 때 聖師라 호칭할 만치 그는 위대한 존경을 받는 고승이었다.

보덕은 고구리의 高僧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650년(보장왕 9) 백제 의자왕 10년에 연개소문 정권의 도교 승신과 불교탄압과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백제로 망명해 왔다.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 의하면 普德法師의 字는 智法이며, 고구리 盤龍山 延福寺 승려였다 한다.⁽¹²⁾ 盤龍山은 함경도 德原과 文川 경계에 있다. 義天이 찾았을 당년에는 延福寺 遺址가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잊었는지 모르겠다.

보덕은 후대에 와서 神格化하여 ‘飛來方丈’의 설화까지 낳게 되었고 그를

(12)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第23 南行月日記에 有景福寺 寺有飛來方丈 予自昔聞之…所謂飛來方丈者 昔普德大士自盤龍山飛來之堂也 普德字智法 嘗居高句麗盤龍山延福寺 一日忽謂弟子曰 句麗唯尊道教 不崇佛法 此國必不久矣 安身避難 有何處所 弟子明德曰 全州高連山 是安住不動之地 乾封二年丁卯 三月三日 弟子開戶出見 堂已移於高連山 距盤龍一千餘里也 明德曰此山雖奇絕 泉水枯竭 我若知師移來 必并移舊山之泉矣 崔致遠作傳備詳 故於此略之

聖師로 숭배하게 되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그가 盤龍寺 승려라고 한데 대하여 이규보는 景福寺 현지에 가서 견문한 바를 적은 글에서 盤龍山 延福寺 승려라 했고 그의 字까지 전했으니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에 인용한 『大覺國師文集』 卷19에 前記한 到盤龍山延福寺禮普德聖師飛房舊址라 題한 詩를 볼 때 의천은 盤龍山에 찾아가 延福寺 舊址에서 普德을 추모하고 시를 지었으니 이를 볼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盤龍寺라 한 것은 정확히 盤龍山 延福寺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고구리의 집권자 연개소문은 641년 政變을 일으켜 영류왕을 처단하고 보장왕을 옹립했다. 그는 불교를 탄압하고 唐나라의 국교인 도교를 숭신하여 당 태종에 道士의 파견을 요청하여 道士 叔達 등 8人を 맞아들이고 老子 『道德經』을 수입하고 불교 寺院을 폐하여 道觀으로 삼았다.⁽¹³⁾ 이와 같은 排佛崇道정책은 부패한 불교의 폐단을 타파하고 방대한 寺院 占有의 田莊 노비와 승려를 사회에 還元코자한 匡正邦家の 시책이었다. 中原대륙을 차지하여 大唐제국을 건설한 物衆地大한 莫强 大唐의 침략에 대항하고 국가와 거래를 보위코자한 연개소문 장군이 단행한 非常 軍國體制—總力 對唐전쟁의 총동원책으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淵將軍의 승도억불정책은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고 많은 승려가 국외로 망명했다고 보겠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고승이 보덕이었다고 보겠다. 보덕은 孤大山에 南下하여 景福寺를 창건하여 백제에서 열반종을 열었다. 그러나 미구에 백제가 멸망하고 삼국이 통일되자 통일신라에서 五敎의 하나인 涅槃宗을 開創한 海東 열반종의 祖師가 되었다.

보덕법사는 高弟가 11人이었다. 聖師가 고구리로부터 南下할 때 함께 내려온 高弟에 明德이 있다.⁽¹⁴⁾ 그리고 金洞寺를 開創한 無上和尙, 珍丘寺를 창건한 寂滅和尙, 義融和尙 大乘寺를 개창한 智蔽法師, 大原寺를 개창한 一乘法師 心

(13) 『삼국사기』 권제21 고구리 본기 제9 寶藏王三年에 蘇文告王曰 三敎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情 太宗遣道士 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王喜 取僧寺館之

(14) 李奎報, 앞의 책에 海東明德大士 亦自捉鷹 爲普德聖師之高弟

正法師·大原法師, 維摩寺를 개창한 水淨法師, 中臺寺를 개창한 四大法師·契育法師 開原寺를 개창한 開元和尚 燕口寺를 개창한 明德法師와 開心法師 普明和尚이 보덕의 高弟들이었다.

孤大山은 高德山 高(孤)達山이라고도 칭하며 全州에 있다.

L. 靈鷲山 朗智門下

원효가 蔚州(靑州 阿曲縣)의 靈鷲山 西谷 礪高寺에 주석하고 있을 때 영축산 赫木庵으로 당대의 고승 朗智大師를 찾아가 알현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남지가 원효에게 『初章觀文』과 『安身事心論』을 짓도록 지시했다. 이를 받들어 원효가 저술을 마치고 隱士 文善으로 하여금 책을 받들고 가서 朗智에게 드렸다. 그때 원효가 그책의 끝에 偈을 지어

西谷沙彌稽首禮 東岳上德高巖前
吹以細塵補鷲岳 飛以微滴投龍淵

서쪽 고을의 중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리니
동쪽 언덕의 높은 스님은 바위 앞에서 높게 앉았다
가는 티끌을 불어 영축산을 보태고
가는 물방울을 날려 용연에 던지네

고 했다. 이 시를 볼 때 원효의 스승에 대한 존경이 지극함을 알 수 있다. 朗智는 후일 義湘大師의 高弟로 錐洞記란 名著를 후세에 남긴 智通이 스승으로 모시고 受學한 學德높은 高僧이었으니 그의 명성과 위상을 알만하다.

보각국존도 평하여 智通과 元曉가 모두 大聖인데 二聖이 摠衣하여 스승으로 섬겼으니 道가 높음을 알만하다고 했다.⁽¹⁵⁾ 원효가 주석하던 礪高寺는 지금 울산 영축산 서쪽으로 추정된다.

靈鷲山은 지금 通道寺가 위치한 梁山의 靈鷲山이 아니다. 지금의 靈鷲山은 옛날에는 鷲棲山이라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梁山郡 山川조에 鷲棲山の 分注에 ‘郡西北三十里 又見彥陽縣’이라 하고 同 佛宇조에 通道寺의 注에 ‘在鷲

(15) 『삼국유사』 권제4 避隱 제8 朗智乘雲 普賢樹

棲山'이라 했다. 同 彦陽縣 山川조에 驚棲山の注에 '在縣南十二里一名大石山'이라 했다. 이로써 靈鷲山이 一名 大石山이었음을 알겠다.

또 하나의 靈鷲山이 있다. 同 靈山縣 山川조에 靈鷲山이 있다. 이 산은 고리와 조선 국초 이래 경상도에서 유일한 靈鷲山이었다. 同 靈鷲山の注에 '在縣東北七里鎮山'이라 하고 西域僧 指空이 이 산에 와서 天竺의 靈鷲山과 그 형상이 같다 해서 靈鷲山이라 칭했다⁽¹⁶⁾ 한다. 同 佛宇조에는 寶林寺 竹林寺 高峯寺 西林寺 寂照寺 法華寺가 모두 靈鷲山에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많은 寺刹이 위치한 것을 보면 불교계에서 聖山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 시대의 靈鷲山과 고리·이조의 靈鷲山과 現在の 靈鷲山이 각각 다르다. 신라시대의 靈鷲山은 지금 蔚山の 靈鷲山이다.

ㄷ. 雲梯山 惠空 門下

원효가 東京서 諸經疏를 撰하면서 매양 惠空에게 찾아가서 질의하였다. 혜공은 別호가 負簍和尚이었다. 그는 당대의 奇僧으로 매양 크게 술취하여 부대를 등에 지고 저자 거리를 미친듯이 다니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여 노래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부대(부개)를 지고 다닌다하여 사람들은 負簍和尚이라 불렀고 그가 살던 절을 夫蓋寺라 했다. 지금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자루를 부대·부개라 한다. 惠空이 만년에 雲梯山 恒沙寺에 가서 주석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원효가 尋訪 謁見하여 質疑하려고 내왕했다.

원효와 혜공이 운제산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돌 위에서 똥을 눌 때 혜공이 원효의 똥을 가리키며 너의 똥은 내가 잡은 고기라고 희롱했다. 그로 인해서 恒沙寺를 吾魚寺라 개칭했다 한다. 이 사실은 誓幢和尚碑에도 '恒沙狂言'이라고 나온다. 이 이야기는 元曉가 스승 惠空과 師弟間에 破格的으로 친구가 되어 奇行과 해학과 희롱으로 놀았던 사실이 이와 같이 극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겠다.

惠空의 奇行異跡은 어느 날 풀로 새끼를 꼬아 가지고 靈廟寺에 들어가서 金堂과 左右經樓와 南門廊廡에 둘러치고 剛司에 말하기를 이 새끼줄을 사흘 뒤에나 끌러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第27 靈山縣 山川조.

치위라 했다.

과연 사흘만에 선덕여왕이 절에 行幸하시니 女王을 연모하여 想思病이 된 志鬼가 女王과의 相逢 약속으로 와서 기다리다 지쳐 잠이들어, 기진한 志鬼가 잠이 깊이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함에 여왕이 지귀의 가슴에 팔지를 뽑아 없고 가셨다. 잠에서 깨어난 志鬼의 가슴에서 心火가 나와서 木塔을 둘러 불탔으나 혜공이 친 새끼줄 안은 火災를 면했다는 것과 같은 靈跡이 많았다 한다.⁽¹⁷⁾ 이것은 혜공의 위대성을 과시하기 위한 이야기다.

그는 당대의 高僧으로 佛敎學에 조예가 매우 깊었다. 원효같은 博學多識의 天才가 자주와서 質疑하는 사실을 보아도 알만하다. 혜공은 원효에 위대한 감화를 준듯하다. 그의 민중불교 전도자로서의 奇行과 常道를 超脫한 파격적인 행동 거지는 惠宿과 함께 雙璧을 이루어 원효의 先驅者로 원효에 영향을 주었다. 원효가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동내방내를 누빈 것도 惠空에게 배운 것인 듯하다.

ㄹ. 大安大師 門下

대안대사와 원효가 師資관계였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大安과 원효와의 관계를 주목코자 한다. 大安이란 高僧의 이름이 나오는 『宋 高僧傳』 黃龍寺 元曉조에

我宮中先有金剛三昧經 乃二覺門通示菩薩行也 今託仗夫人之病 爲增上緣 欲附此經 出彼國流布耳 於是將三十來紙 重奮散經 付授使人 復曰此經渡海中 恐羅魔事 王令持刀裂使人腸腸而內于中 用蠟紙纏膝以藥傳之 其腸如故 龍王言可令大安聖者 銖次綴縫 請元曉法師造疏講釋之…時王聞而歡喜 乃先召大安聖者黏次焉 大安者不側之人也 形腹特異 恒在市鄕 擊銅鉢唱言 大安大安之聲 故號之也 王命安安云但將經來不願入玉宮闕 安得經排來成八品 皆合佛意 安曰速將元曉講 餘人則否 曉受斯經…復顯大安曉公神異

라는 기사와 『삼국유사』 권제4 元曉不羈에

亦因海龍之誘 承詔於路上 撰三昧經疏 置硯於牛之兩角上 因謂之角乘 亦表本始二覺之微旨也 大安法師排來而粘紙亦知音唱和也

라는 위의 이야기는 신라 문무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龍王宮中에서 용왕

으로부터 『金剛三昧經』을 받아올 때 용왕이 『금강삼매경』을 조각 조각 흠어 형글어 쌓아주면서 大安聖師로 하여금 차례대로 골라 이어 붙이고 원효법사에 청하여 疏를 지어 講釋케 하라고 분부했다.

신라 왕이 먼저 大安聖者를 불러 『금강삼매경』을 순서대로 붙이게 불러들였다. 大安이 그 어명을 받고는 『金剛經』을 가져 오라! 궁궐에 들어가지는 않겠노라 하고는 『金剛三昧經』 종이를 배열하여 차례대로 이어 八品을 이루니 모두 부처님의 說한 차례와 같았다. 그리고 大安이 말하기를 속히 원효에 부탁하여 講하게 하라 다른 사람은 안되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大安은 그의 신분을 알 수 없었다. 이상한 복장과 모습을 하고 항상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리 바루를 두드리며 大安 大安이라 소리지르며 다녔다. 그래서 그의 호를 大安이라 했다 한다.

이 기사를 예이 분석해보면 원효와 大安은 동시대에 불교계의 두 巨擘이었다. 이들 두 巨匠은 친밀했고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大安은 이미 聖者라 호칭하는데 대하여 원효는 法師라고 호칭되었다.

이 보다 앞서 수년전에 국왕이 仁王經百高座講會를 열 때 원효를 그의 鄉關州에서 명망이 있어 碩德으로 천거했으나 다른 高僧大德들이 미워하고 꺼려 배척해서 그 법회에 참석치 못했다.

그러므로 문무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국왕 大臣왕족 고승 대덕들을 모아 놓고 대가람의 법당에서 『금강삼매경』을 강하는 법회는 대안성자의 강력한 추천이 없었다면 전번 인왕경백고자강회 때처럼 압독군 출신 시골의 沙彌에겐 어렵없는 일이었다고 본다.

원효의 위대한 자질과 深奧한 蘊蓄造詣와 高邁한 學德을 인정하고 아끼고 추천한 大安聖者는 원효의 친구는 아니었다고 보겠다. 친구였다면 이같이 莫重講會에 추천할 권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원효의 선배요 스승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원효가 天性이 不羈 豪宕하여 無碍瓢를 두드리며 노래부르고 저자거리를 헤매 누비고 千村萬落을⁽¹⁷⁾ 돌아 다닌 민중불교운동 포교활동은 大安聖者의 菩薩行과

(17) 『삼국유사』 권제4, 義解 卷5 二惠同席

教化를 방불케 한다. 원효의 행동거지는 스승인으로서의 大安을 効則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大安을 원효의 師傅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나의 추론은 무리한 비약이 아니라고 본다.

당시 민중불교의 四大 巨星으로서 奇僧에 大安 惠宿 惠空 元曉을 꼽는다. 이들은 破格的인 奇行과 저자거리를 누비며 教化하는 보살행도 같았다. 二惠는 원효의 선배였다. 어느 의미에서 스승이었다고 모아 속단이 아닐 것이다. 이 중 세 사람은 興輪寺 金堂十聖에 나란히 들어 있는 것도 의미있다.

□. 元曉의 門人

원효대사의 師資相傳에 관한 기록은 찾을 길이 없다. 誓幢和尚碑에

佛法能者有九人 皆稱大德

이라는 기사에서 원효의 문하에서 9인의 高弟 大德이 배출한 것을 알 수 있겠으나 사료의 인멸로 인하여 이름이 전하지 않음은 유감이다.

嚴莊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는 원효의 弟子를 알려주는 귀한 글이다.

莊愧赧而退 便詣元曉法師處。懇求津要 曉作錚觀法誘之 藏於是寮己悔責 一意修觀 亦得西昇 錚觀在曉師本傳 寫海東僧傳中

이 기사는 문무왕대에 沙門 廣德과 嚴莊이 독실히 수도하여 西方淨土에 간 이야기다. 廣德이一念으로 西方淨土에 가기를 염원하며 '아미타불'을 念誦하여 西方으로 가고 친구 嚴莊이 廣德의 아내와 동거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으려 하니 그녀가 '師求淨土 可謂求魚緣木'이라고 꾸짖음에 엄장이 크게 뉘우쳐 원효대사의 門下에 가서 가르침을 받으니 원효가 錚觀法을 지어 지도하였다. 그래서 엄장이 깨달아一念으로 修觀하여 西昇했다 한다.⁽¹⁸⁾ 이 이야기에서 엄장이 西昇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도의 경지에 다다른 高僧이었던 듯하다. 그는 元曉의 淨土學을 傳受한 弟子라고 본다.

(18) 위의 책, 元曉不羈

蛇巴

『삼국유사』에 蛇巴(福)의 이야기가 蛇福不言조에 기재되었다. 서울(東京) 萬善寺 北里 과부의 아이 蛇福이 그 어머니가 죽자 高仙寺에 원효대사를 찾아가 같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지낼 때 원효가 ‘나지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도다 죽지말지어다 그 남이 괴롭도다’ 하고 더 압축하여 ‘死生이 괴롭도다’ 하고 活里山 동쪽 기슭에 장사했다는 이야기다.⁽²⁰⁾

蛇福을 聖格化하여 원효와 동격에 올려 놓으려한 감이 있다. 蛇福이 위대한 高僧이었던 것은 興輪寺 金堂十聖像으로 알만하다. 十聖은

東壁：我道 獸觸 惠宿 安舍 義湘

西壁：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

이다. 그는 十聖에 들었다. 蛇福은 蛇巴 蛇包 蛇童이라고도 한다.

고리 때 李奎報가 邊山 蘇來寺 元曉房에 찾아가서 쓴 글에 元曉房의 곁에 한 庵子의 내력에 蛇包聖人이 住錫했는데 원효를 모시고 여기서 供茶했다는 사실을 적었다.⁽²¹⁾

이것은 원효가 蛇包的 스승이었음을 의미한다. 한 절에 駐하면서 모시고 供茶했다면 執贊拈衣의 禮에 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師資관계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 元曉房엔 원효의 影幀이 奉安되었고 조선시대까지 원효의 遺跡이 그대로 保存되고 있었다.⁽²²⁾

그러므로 이곳에 직접가서 이곳의 來歷을 적은 이규보의 기록은 신빙할 만하다.

2. 修道處

ㄱ. 扶安, 邊山, 蘇來寺 元曉房

邊山은 一名楞伽山 瀛洲山 卞山이라 하는 名山이다. 이 산에 蘇來寺가 있고

(19) 위의 책, 권제7, 感通 제7 廣德 嚴莊

(20) 위의 책, 권제4, 義解 제5, 蛇福不言

(21) 李奎報, 앞의 책에 至元曉房…傍有一庵 俗語所云 蛇包聖人所昔住也. 以元曉來居 故蛇包亦來待 欲試茶進曉公 病無泉水 此水從巖罅忽湧出 味極甘如乳 因嘗點茶也 元曉房才八尺…內室有佛像元曉眞容

(22) 위의 책

부근에 원효가 수도하던 元曉房이라는 절이 절벽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에 蛇包聖人(一名 蛇巴 蛇福 蛇卜 蛇童)과 원효대사가 와서 住錫하고 있었다. 당시 蛇包가 원효를 모시고 茶를 다려 올렸다고 한다. 이 절에 李奎報 당년에 원효의 眞容이 모셔 있었으며 조선 국초에까지 원효가 거처하던 方丈이 그 당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²³⁾

이 산에는 의상대사가 거처했다는 義湘庵도 있다. 원효가 백제 영역이던 이곳에 온 것은 백제가 멸망후 문무왕대에 왔다고 보겠다. 백제의 강역이 신라에 통합되자 원효 의상 같은 당대의 고승대덕은 新天地의 名山勝區를 찾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고 또한 그곳 불교계의 초청도 있었을 것이며 신라 조정에서도 원효같은 고승을 백제의 고토에 보내어 종교계를 선무 기미하기를 권장했을 것으로 보겠다.

백제 강역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백제유민의 부흥운동 저항운동으로 신라 조정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민족융화 통일을 위해서 和靜思想을 창조한 원효같은 민중불교의 거성을 호국의 일선에 투입하여 백제의 불교계를 포섭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의상도 가세하여 華嚴十刹을 창건하여 백제 영역에 화엄종으로 불교계를 기미하고 보덕으로 하여금 涅槃宗으로 백제 정신계를 지배하여 통일신라 민족융화정책에 공헌케 했다고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孤大山에 신라의 대표적인 엘리트인 원효와 의상이 그의 門下에 가서 師資관계를 맺었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제요인이 相乘하여 원효는 백제의 名山인 이 곳에 와서 머물기도 했다고 보겠다.

백제 병합 직후는 치열한 부흥운동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며 문무왕 17년 이후는 백제 강역의 평온이 회복되어 교류가 활발했다고 보겠다. 이 때에 원효의 이 지방 방문이 무난했을 것이다. 이 산 元曉房 위에 眞表律師가 聖簡子를 慈氏로부터 받고 得道한 不思議方丈이 있다. 이 邊山이 원효의 수도처로 신성시된 듯하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승려가 이곳에 와서 수도한 듯하다.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扶安縣 佛宇條, 元曉房의 分注에 新羅僧元曉所居方丈至今猶在

L. 廣州 高湊 城山 蘭若

11세기 法印國師의 寶乘塔碑에 의하면

吾非汝師 可往勝處 大師方欲僧之眞者 必訪跡之古者 必尋會歸覲曰 古老相傳 鄉城
 山内 有佛寺之墟 昔元曉菩薩□□□□□□居所憩 大師既聞斯聖跡 盍 詣彼玄基⁽²⁴⁾
 以習善 遂芟于基舊墟 檻心猿抑意馬 于以休足 于以齋心 經歷數年 時號之 聖沙彌

라는 글이 보인다. 垣文의 鄉山 城山内에 佛寺의 有墟가 있어 옛날 원효보살이
 주석하던 곳이 있어 古老相傳하여 聖跡玄基라 하던 곳으로 聖域化되었었다.
 垣文이 이곳에서 여러해 동안 수도하여 聖沙彌란 칭호를 들었다.

이를 볼 때 고려 초기에 이곳 鄉山 城山内에 원효의 유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수도를 매우 중히 여겼다.

C. 楸山 蘭若

圓朗禪師 大通의 塔碑文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사에 주목된다.

爰抵楸山寓□□□□乃神僧元曉成道之所也 習定三月⁽²⁵⁾

이를 볼 때 楸山이란 곳에 원효가 成道한 곳이란 傳承이 있어 유명하여 9세기의
 大通이 여기에서 석달동안 수도했다. 이 원효의 成道處는 聖所로 존중되어 여기서
 수도하면 원효처럼 득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 원효의 成道之所라한 楸山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원효의 得道
 사실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宋高僧傳』에 실린 다음의 이야기는 이 楸山成道處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그 곳이 어디인 지도 알 수 없다.

元曉法師同志西遊行 至本國海門唐州界 計求巨艦 將越滄波候 於中道 其苦雨遂
 依道旁 土窟間隱身 所以避飄濕焉 迨乎明旦 相視乃古墳骸骨旁也 天猶霖霖 地
 且泥塗 尺寸難進 逗留不進 又寄挺壁之中 夜之未央 俄有鬼物爲怪 曉公歎曰 前
 之寓宿 謂土窟而且安 此夜留宵託鬼鄉而多祟 則知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竊墳

(24) 「迦耶山普願寺故國師法印三重大師寶乘之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224.

(25) 「月巖山月光寺円朗禪師大寶禪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p. 84.

不二 又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我不入唐 却携囊返國⁽²⁶⁾

이 기사를 보면 원효가 의상과 뜻을 같이하여 충청도 唐津에서 배로 唐나라에 가려고 기다릴 때 도중에서 비를 만나 풍우를 피하려고 길가에 있는 흙토굴집에 들어가서 피해 잤다. 이튿날 밝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토굴집으로 알고 잔 곳은 허물어진 무덤(橫穴式石廓墳墓)이었다. 入口는 무덤의 法道였다. 방(玄室) 안엔 해골과 뼈가 널려 있었다. 하늘은 계속 비가 쏟아지고 땅은 질이 나갈 수 없어 계속 머물다가 흙벽돌집에 찾아 들어가서 자게 되었다.

한 밤중에 문득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혀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효가 탄식하기를 앞서 잔곳은 무덤 속이라하나 편했는데 오늘 밤에 잔대는 흙집이지만 귀신 소굴이라 귀신 장난이 많아 도리어 불편했구나.

그러니 마음이 일면 여러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으면 토굴과 무덤이 다를 것이 없도다. 또한 三界는 오직 마음이며 萬法은 오직 識에 있나니 마음 밖엔 법이 없나니 어찌 다른데 구하리오 하고는 진리를 깨달아(得道하여) 그만 당나라에 求法갈 계획을 그만두고 돌아 오고야 말았다.

즉 이것은 成道를 의미하며 土窟(무덤)이 있던 곳이 成道之所의 하나였다고 보겠다. 이 소재지는 唐津부근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3. 住錫寺刹

ㄱ. 芬皇寺

원효가 住錫한 사찰 가운데 가장 인연이 깊고 유명한 절이 분황사다. 이 절은 원효가 창시한 海東宗(法性宗)의 근본 道場, 중심 사찰이었다. 원효가 이 절에 있으면서 『華嚴經疏』를 찬술하여 第40廻向品에 이르러 絶筆했다.

『삼국유사』 獸觸滅身조에서 他方菩薩出現於世란 기사의 分注에

謂芬皇之陳那 浮石寶蓋 以至洛山五臺等是也⁽²⁷⁾

(26) 『宋高僧傳』 卷第4 「唐新羅國義湘傳」

(27) 『삼국유사』 권제3 흥법제3 原宗興法

라 했다. 원효를 芬皇寺의 陳那菩薩 現身이라 하고 義湘을 浮石寺의 金山寶蓋의 化身이라 했다. 大覺國師의 詩에 ‘浮石芬皇曾問道’란 시귀를 보면 義湘의 대명사가 浮石寺요 元曉의 대명사가 芬皇寺였다. 아들 설총이 아버지 원효의 入寂後 元曉의 碎骨 塑像을 芬皇寺에 造成 安置하였다. 그래서 普覺國尊 시대까지도 뒤를 돌아다보는 독특한 그 소상이 그대로 있었다.⁽²⁸⁾

고려 明宗朝의 名臣 中書侍郎門下平章事判吏部事 韓文俊이 撰하고 平章事 崔誥이 書한 和靜國師元曉의 碑를 이 절에 건립했다. 이를 볼 때 원효의 대표적인 住錫사찰이 芬皇寺였다.

그리고 이 절에서 많은 著述도 했었다.

ㄴ. 皇蘭寺

『宋高僧傳』에 원효전을 唐新羅國黃龍寺釋元曉傳이라한 것을 볼 때 원효가 皇龍사 승려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皇龍사는 신라 제일의 대가람으로 구충탑 장육불 大鍾 등 신라 일급 국보가 있던 명찰이었다. 원효가 이 절에 주석하기는 통일전생 시기일 것 같다. 당시 이 절에서는 전승과 통일을 기원하는 호국의 仁王經百高座講會가 이어졌을 것이다. 九層塔 건립이 九夷를 調伏하고 三韓을 一統하는데 있었으니 통일을 기원하는 호국불교의 총본산이었다.

『삼국유사』에 고구리 원정 때 唐軍사령관 蘇定方이 종이에 송아지와 새를 그린 信書를 보내자 그 뜻을 몰라 元曉에 보내어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이 시기에 생겼을 것이다. 이때 원효는 의상 자장과 함께 통일 기원법회를 주도했다고 본다.

ㄷ. 穴寺

『삼국유사』에 원효가 살던 穴寺의 옆에 아들 설총의 집이 있다고 했다. 이를 볼 때 원효는 파계하여 小姓居士가 되어서는 이 절에 居住했던 듯 하다. 그리고 그 절 옆에 그의 아들 설총의 집이 있었다. 誓幢和尚碑에 의하면

(28) 위의 책, 元曉不羈조에 既入寂 恥碎遺骸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恥時旁禮 像忽迴顧 至今猶觀矣

歸移居穴寺 緣以神廟…垂拱二年三月卅日終於穴寺 春秋七十也 卽於寺之西峯權宜廡室

이란 글귀가 있다. 이를 보면 원효는 만년에 穴寺에 옮겨 살다 이 절에서 示寂했다. 이 穴寺가 어디 있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寺의 西峯에 원효의 임시 遺骸를 安置하기 위한 廡室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볼 때 穴寺의 위치가 대충 南山 동편 기슭일 가능성이 있다.

그절 근처에 薛聰의 집이 있었다하니 조정에 翰林 奈麻⁽²⁹⁾로 벼슬산 설총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 볼 때 南山 東편 현 佛無寺 菩提寺 南山里 등지쯤 되리라고 보겠다.

ㄹ. 高仙寺

원효가 주석한 절로서 『삼국유사』 권제4 蛇福不言조에

因號蛇童 一日其母死 時元曉住高仙寺 曉見之迎禮 福不答而拜曰 君我昔日馱經 犂牛 今已亡矣 偕葬何如 曉曰諾 遂與到家 令曉布薩授戒

라는 기사에서 원효가 高仙寺에 住하고 있었으며 蛇巴(福)와 거의 친구와 같은 同格으로 蛇巴의 어미를 장사지냈다. 誓幢和尚碑에

佛地聖體高仙據此村名…灌水之處 從此池成此口高仙寺 大師房前小池是也…高仙 大師佛地而

라는 기사가 보인다. 원효를 高仙大師라 칭하고 高仙寺에 大師房이 있으며 원효를 聖體高仙이라 칭하고 있다. 원효가 高仙寺에 상당히 오래 주석했던 듯하다. 그래서 그들 高仙大師라하는 칭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원효가 고선사에 주석한 것은 원효의 만년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여진다. 그가 芬皇寺에 住錫하고 난 뒤가

(29) ○「甘山寺阿彌如來造像記」『朝鮮金石總覽』上 p. 36에 開元七年歲在己未二月十五日 奈麻聰撰奉教
○「海東高僧傳」安舍傳에 翰林薛某奉詔撰碑其銘云의 注에 碑文若蝕字缺十喪四五略取可觀擬似成文.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를 高仙大師라고 비문에서도 만년의 사실을 적으면서 쓴 칭호다.

高仙寺는 경주시 陪谷里에 巨大한 三層 石塔만이 남은 遺址였으나 지금은 德洞댐으로 水沒되었다. 서당화상비도 이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원효의 碑가 고선사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원효와 고선사의 住錫인연이 특수한데 있었을 것이다.

□. 初開寺

원효가 그의 살던 집을 회사하여 절을 삼았다. 그래서 절 이름을 初開寺라 했다. 당시는 승려가 자기의 生家나 살던 집을 회사하여 절로 만드는 것은 시대적인 유행이었다. 그와 같은 습속이 불교계에 있었다. 예를 들면 慈藏律師도 그가 나서 살던 집을 元寧寺로 했다.⁽³⁰⁾

初開寺는 初蓋라고 불렀던 듯하다.⁽³¹⁾ 서당화상비에 大師初蓋는 毗讚玄風之大匠也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원효는 初蓋寺에 살면서 工夫를 쌓았다고 보겠다. 서당화상비문의 위의 글은 ‘대사가 초개절에 있어 불교가 크게 완성하는데 공헌했다. 혹은 佛敎에 공헌한 大匠 즉 大家였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

실제 원효는 百座仁王經大會에 本州(押督郡)의 추천을 받았고 후일 大安聖者の 천거로 『金剛三昧經』을 국왕으로부터 받을 때도 그의 鄉里에서였다. 『宋高僧傳』에 이를 기술하여

安曰速將付元曉 余人則否 曉受斯經 正在本生湘州也

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효가 그의 生家を 회사하여 初蓋(開)寺로 만든 것은 원효가 승려로 大成하여 상당한 高僧으로 유명해진 이후가 된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그때까지 원효의 學問과 修練은 그의 鄉關내의 名山 名區에서 행해졌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工夫는 그의 生家 집에서, 修道는 향관의 名山

(30)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慈藏定律조에 改營生緣里第元寧寺.

(31) 金相鉉 「新羅誓幢和上碑의 再檢討」 蕉雨黃壽永傳土古稀記念 『美術史論叢』 通文館, 1988년, p. 486.

公山등지에서 주로 하지 않았을까 한다. 工夫도 처음 落彩 出家는 山寺의 大德 門下에 가서 하고 受戒하고 불교의 學業을 받았을 것이니 처음부터 자기 집에서 工夫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효의 道가 어느 경지에 達하고 學의 蘊蓄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향리의 生家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더구나 初蓋寺에서 玄風(불교)의 大匠(大家)이 되는데 寄與했다든가 하는 것을 보더라도 원효가 巨匠이 된후의 일이라고 본다.

ㄴ. 娑羅寺

원효의 어머니가 어린애를 배어 이 고을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급히 산기가 있어 집에 가지 못하고 지아비의 옷을 밤나무에 걸어 놓고 애를 낳고 거기서 잤다 한다. 그로 인하여 이 밤나무를 娑羅樹라 命名하고 그 나무 옆에 娑羅寺를 지었다. 사라수의 밤을 娑羅菓이라 하여 普覺國尊 당년까지도 전해내려 왔다.⁽³²⁾

이곳은 같은 押梁郡에 있으며 원효가 살던 집 마을 佛地村 부근으로 등성이를 하나 넘은 골짜기라고 보여진다. 지금 慶山 三聖山 밑의 어느 골이라고 보겠다. 이 절에 원효가 들렀고 간혹 住했을 것은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이 娑羅樹의 원효 탄생說話는 釋迦世尊의 탄생이야기를 가져다가 元曉聖師 혹은 元曉菩薩이라 崇仰하던 원효를 석가모니의 聖誕의 경지에 까지 昇華시킨 설화라 본다.

석가모니의 탄생을 보면 王妃 摩耶夫人이 無憂樹(娑羅樹(sala)) 나무가 선 룬비니 동산을 지날 때 서러수 나무가지를 잡자 産氣를 느껴 여기에 장막을 치고 사라나무를 잡고 선채로 옆구리로 고타마 싯달타 太子를 낳았다. 이 아소카(阿輸迦)나무를 北傳 大藏經에서는 意譯하여 無憂樹라 하고 南傳 大藏經에서는 音借 表記하여 娑羅樹라 했다.⁽³³⁾

(32) 『삼국유사』 권제4 의해 제5 元曉不羈조

(33) 일반적으로 沙羅樹는 釋迦世尊 涅槃聖地の 拘尸那揭羅 城外の 娑羅雙樹로 유명하여 雙樹林 堅固林 鶴林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 娑羅樹는 沙羅 薩羅 蘇耳連이라고도 異稱하며 堅固高遠이라 譯한다. 過去七佛中 第3毘舍浮佛의 道場樹로 이 나무 아래서 正覺을 이루었다(長阿舍第一大本經), 隨業佛이 이 나무 아래서 得道했다(七佛父母姓字經).

○ 中村元 『佛の世界』, 金知見譯, 『佛の世界』 p. 180에. 釋迦牟尼가 아소카나무(사라수) 아래서 탄생했다는 『南傳大藏經』의 기사를 소개 論證했다.

이와 같이 신라인은 元曉를 부처님의 탄생으로 보았다. 신라인은 인디아 天竺에 대하여 東天竺이란 신라 佛國土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王京 서울(東京)을 前佛時의 遺墟라고 자부하고 皇龍寺丈六佛은 天竺 아소카王이 造成하지 못한 것을 造成했다는 자랑스런 緣起說을 창조했었다.

나. 佛光山 擲板庵과 千聖山(元曉山) 內院寺

梁山郡에 위치한 佛光山엔 擲板庵이 있다. 이 절의 擲板庵事蹟碑와 由來에 의하면 원효가 이 庵에 住錫하고 있었으며 당시 唐나라 淡雲寺에 千명의 승려가 供養中 집이 무너져 壓死의 危機를 神通眼으로 이를 알고 식사하던 盤(밥상)을 급히 던져 그 古寺 上空에 날라가 이상한 소리를 냄에 千명의 大衆이 밥먹다 말고 마당에 뛰어나가 구경할 때 집이 폭삭 무너져 壓死를 면했다. 마당에 떨어진 盤엔 ‘海東元曉擲盤救大衆’이라 쓰여 있었다 한다.

그리고 梁山 千聖山(元曉山) 內院寺의 由來에 擲板庵에 住하던 元曉가 唐 太和寺에 수도하던 一千衆이 장마로 뒷산이 사태나서 몰사할 위기일발에 원효가 ‘海東元曉擲板救衆’이라는 글을 쓴 큰 판자를 던져 구출했다. 그후 千人은 신라에 건너와서 원효의 門下에 오니 원효는 이들을 거느리고 수도처를 찾아 이 산에 와서 內院寺를 창건하고 이들을 이곳에서 수도케 하였다. 그리고 山上의 華嚴 舘에서 講演하였다 한다. 이 산에서 一千의 比丘가 모두 得道했다 하여 千聖山이라 했다 하는 설화가 전한다. 이 설화는 황당무개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것은 원효의 神異와 위대한 教化를 과시하기 위한 조작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취할 바는 佛光山과 千聖山에 元曉가 住錫했으며 여기서 많은 門徒를 거느리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야기는 제법 유명하여 널리 퍼졌던 듯하다. 『宋高僧傳』에도

初曉示跡無恒 化人不定 或擲盤而救衆或噴水而撲焚

이라는 글이 있다. 千聖山과 元曉山은 봉우리가 같이 붙은 산으로 元曉山엔 元曉庵이 있다. 이곳에 원효가 창건 주석했다 한다.

4. 悟道處 八公山

원효와 가장 인연이 깊은 산은 원효의 고향에 있는 名山 公山일 것이다. 公山은 『삼국사기』 권제 32 祭祀조에 의하면 中祀 五岳의 하나에 中岳 父岳(公山)이 있다. 이 中岳의 分注에 ‘一云公山押督郡’이라 했다. 이를 보면 中岳 公山은 押督郡에 소재했다.

원효는 분무왕 초년에 仁王經 百高座講會에 전국에서 백명의 고승 대덕을 초치할 때 本州에서 명망이 있어 추천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른 승려들의 배척을 받아 참석치 못했다. 그리고 金剛三昧經을 講하란 王命을 받을 때도 고향에서였다.

이를 볼 때 원효는 下湘州(下州 良州) 압독군의 추천을 받을 만치 그의 향내에서는 이름이 났었다. 원효는 그의 고향 압독군에서 受學 修道했다. 그렇다면 그의 향내에서 제일가는 名山 中岳 公山을 빼놓을 수 없다. 公山은 당시 신라 제일의 靈山聖岳으로 여기서 수도하면 득도하는 신령스런 산으로 유명했다.

金庾信이 화랑으로 있던 17살 되던 해에 中岳 石岫에서 修道하고 得道하여 被褐老人 難勝으로 부터 삼국을 통일할 祕法을 받아⁽³⁴⁾ 명장이 된 신령스런 산이다. 김유신과 동시대에 중악에 주석하던 神通力 不可思議한 密敎 僧 因惠⁽³⁵⁾와 神異한 高僧으로 佛骨 聖簡子를 傳受한 心地大師가 中岳에서 수도하여 득도한⁽³⁶⁾ 사실은 중악이 신령스런 修道 聖地로 靈驗神效가 있던 신령스런 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곳에 원효가 수도치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원효의 출생지 생장 마을에서 보면 북쪽에 公山이 우뚝 서 신령스럽게 보인다. 公山은 조선시대에 오면 八公山으로 불리고 지금도 八公山이라 호칭한다.

팔공산은 한국 일급 불교 성지다. 이 산에는 本山인 桐華寺 銀海寺란 두 대가람이 있으며 제2석굴암 居祖庵은 국보로 지정된 절이며 環城寺 百興庵은 보물로 지정된 절이다. 松林寺 佛窟寺·桐華寺 禪本寺등은 寶物을 가진 절이다. 보물인

(34) 『삼국사기』 권제41 열전 제1. 金庾信上

(35) 『삼국유사』 권제5 神呪제6 密本摧邪

(36) 위의책. 권제4. 義解제5 心地繼祖

갓바위 如來像, 동화사 입구 마애불을 위시하여, 비로봉 마애불, 동봉 입불상 등 많은 石佛이 있고 대장경을 봉안했던 符仁寺⁽³⁷⁾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 제일의 불교 성지다.

이 산은 千年法燈不滅의 名山으로 山谷 到處에 원효와 얽힌 수도처가 있어 이 산 道俗間에 전승되어 왔다. 八公山은 대구·경산·영천·군위·칠곡·선산의 여섯 市郡에 걸친 거대한 산악으로 높이가 해발 1,192m의 산이다.

원효의 고향 옛 압록군 관내에 위치했던 이 산에 원효와 緣起된 寺院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 원효의 수도처가 史籍에 기록된 文字가 없음은 매우 유감이다. 현재 남은 원효의 기록과 신라시대의 기록은 극히 零星하여 그 遺存은 實로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 현재 寺刹 내력에 文字로 남아 있는 원효의 수도처 중 몇 곳을 들어 보겠다.

ㄱ. 佛窟寺

이 절의 소재는 경산군 와촌면 강학동 팔공산 기슭이다. 절 뒤 절벽에 올라가면 방 2칸 크기의 석굴이 있다. 이 석굴을 佛窟 또는 元曉窟이라 한다. 이 석굴에서 연전에 신라 금동 입불이 발견되었다. 굴 안에는 약수가 흘러 나오고 있어 수도처로서는 이상적인 천연 석굴이다. 불굴사에는 통일 신라기의 3층 석탑이 있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절의 내력에 원효대사 수도굴이라 적혀 있다.

ㄴ. 元曉庵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팔공산 기슭에 있다. 佛窟寺에서 약 6km가량 떨어져 있다. 절의 연혁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적혀있다. 절 뒤에는 배 모양의 감실에 마애좌불상이 있다.

ㄷ. 修道寺

영천군 신령면 치산동 팔공산 主峰인 비로봉 밑에 幽邃한 仙舟巖瀑布 계곡에 위치한다. 절의 사적기에 원효와 의상이 수도하던 절이라 수도사라 이름했다 한다.

(37) 『東國李相國集』 卷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無佛像梵書 悉焚滅之 於是符仁寺之所藏大藏經板本亦插之無遺半

ㄹ. 中岳 石巖 中巖庵(돌구무절)

중암암을 민간에서는 돌구무(돌구멍)절이라 칭한다. 깎아지른 절벽에 제비 집마냥 자리잡고 奇岩怪石의 石門 石窟을 지나 절에 들어간다. 그야말로 路穿 石罅通 泉透雲根落이란 坦然의 文殊寺 詩句의 표현을 방불케 한다. 절 뒤에는 저승굴 또는 장군굴이라 하는 김유신장군의 수도처가 있고 그가 마시던 장군수가 있어 유명하다.

후대 헌덕왕자 心地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고 眞表律師가 傳授한 永深大師의 佛骨聖簡子を 心地가 傳受하여 와서 公山에 오자 公山 山神이 두 仙子를 거느리고 맞아 禮拜 賀禮하던 바위가 여기며 흔들바위 萬年松이 있고 三印岩이라 大書 刻字한 三印岩이 있다. 이곳은 팔공산 제일의 勝區絶景이다. 그리고 公山에 入山하는 修道자가 반드시 일단 수도하는 靈所다. 이곳에서 元曉도 수도했다고 전한다. 고리시대의 公山 居祖寺에서 勸修定慧結社文을 발표한 普照國師 知訥이 公山에서 수도할 때 念佛寺 뒤의 訥岩窟과 이곳 石巖에서 수도하여 득도했다 한다.

ㄱ. 悟道庵 誓幢窟 石窟庵

오도암은 팔공산 제1의 명당으로 널리 알려진 절터다. 팔공산 비로봉 靑雲臺 절벽 밑에 자리했다. 팔공산에서 진불암 삼성암과 함께 3 高所寺院이다. 이 절은 원효대사가 수도하여 悟道한 곳이다. 그래서 절이름을 悟道庵이라 한다. 壬申年(1932) 石泉散人 洪載夏撰 悟道庵 重建記에

羅時有五法侶開山 結茅修禪悟道 故元曉大師因創是庵而名之

라는 글이 있다. 조선 이래의 전승에 八公山이라는 山名은 원효대사의 제자 一千衆이 梁山 千聖山(元曉山)에서 원효 門下에서 受業하고 수도하여 988人이 悟道하고 나머지 12人중 8人이 八公山 桐華寺에 가서 悟道하여 八公山⁽³⁸⁾이라

(38)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下卷 p. 951 銀海寺조에 元曉祖師率弟子千人 講華嚴於彥陽千聖山 遺弟子八人於八公山 結兩庵而居 三聖庵乃三人見性處 五道庵乃五人得道處也

하고 4인이 문경 大乘寺에 가서 悟道하여 四佛山이라 했다 한다. 八公山에 들어와 8인은 그중 3인이 三聖庵에서 悟道하여 三聖庵이라 했다 하고 五人이 五道庵에서 悟道했다하여 五道庵이라 했다는 傳承이 내려왔다. 그러나 8인이 八公山에 入山 悟道하여 八公山이라 했다는 것은 八公자를 가지고 만든 전설이다. 이 산이 신라시대에는 公山 혹은 父岳 혹은 中岳이라 불렀고 八公山이라 하지 않았다. 八公山이라 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명칭이다. 그러므로 이는 맞지 않는다. 四佛과 大乘寺의 전설도 『삼국유사』 권제3 塔像제4 四佛山에

竹嶺東百許里 有山屹然高峙 眞平王 九年甲申 忽有一大石 四面方丈 影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其山頂 王聞之命賀瞻敬 遂創寺崑側 額曰大乘寺

라는 記事가 있다. 四佛山은 眞平王 9년 甲申 즉 원효가 나기 30년전에 벌써 있었다는 전설이 고리시대까지 내려 왔고 이때 大乘寺가 창건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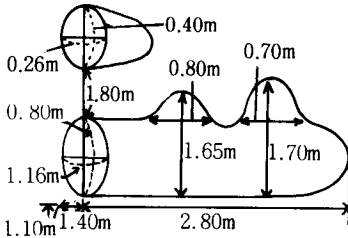
이와 같이 8인의 八公山 入山과 4인의 四佛山 入山說話는 후대의 조작이다.⁽³⁹⁾ 이 설화가 悟道庵 원효 설화와 습합되어 위와 같은 悟道庵 유래를 낳았다. 悟道庵은 원효의 證悟處로 古來에 전승되었다. 이 절과 부근 村落에 원효의 수도 석굴이 靑雲臺 절벽에 있다는 전승이 내려왔다. 나는 이 전설에 따라 원효굴을 찾아 수년간 탐사했다. 그러다가 1988년 10월 23일 해발 1,050m 높이의 靑雲臺 頂上 가까이 절벽에서 원효굴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 때의 조사단은 洪七欽(大栗洞長), 洪宗欽(매일신문 문화부장), 朴在健(형설출판사 상무), 李在洙(古美術연구가), 裴在弘(경북대 사학과), 申衡錫(경북대 사학과), 法燈(석굴암 주지), 仙默(悟思寺 住持) 등 제씨다.

굴의 규모는 길이 280cm, 굴입구 높이 0.8m의 둥근 원통형의 굴엔 쌍봉 낙타 모양의 두 돌기로 파여 올라가 있다. 이 굴은 靑雲臺 千仞絶壁의 正南面에 南向하여 人工으로 굴착한 橫穴石窟이다. 겨울에는 햇볕이 굴 안에 까지 들어간다. 여름에는 굴안에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굴의 맞은편 골에 아래로 100m 가량 떨어진 밑에 南에서 北으로 굴착한石窟이 있다. 이 굴은 이 원효굴과 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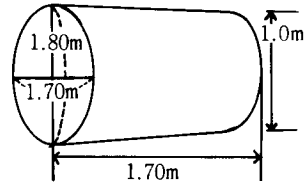
(39) 金煥泰「傳記와 說話를 통한 元曉 研究」『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社, 1987, p. 276.

방향이 마주보고 있다. 이 굴의 뒤에서 쳐다보면 원효굴이 보인다. 아마도 원효굴과 유관한 굴일 것 같다. 弟子上座나 侍從者들이 거쳐 했을 것 같다. 이 굴은 안으로 길이 1.70m 굴높이 1.80m 넓이 1.70m다. 이 굴을 B굴이라 명명하고 앞의 원효굴을 A굴이라 칭하겠다.

A 굴



B 굴



八公山 靑雲台 南麓 元曉窟

원효굴의 입구 오른쪽 절벽에 銘文이 조각되어 있다. 세 자가 조각되어 있다. 가로 세로 7cm 가량의 크기로 썼다. 위의 글자는 誓字가 확실하다. 그러나 밑의 두 자는 마모가 심하여 매우 判讀하기 어렵다. 둘째 자는 幢字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고 셋째 자는 龕字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幢자와 龕자는 조사단 일행의 判讀時 이와 같은 판독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세 글자를 誓幢龕로 판독하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이 字體는 楷書體였다. 이 誓幢龕은 원효가 유명하게 되자 그의 法嗣들에 의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刻字했다고 보겠다. 글자의 마모 상태나 字體로 보아 신라시대의 刻書로 보겠다.

이 石窟까지 가는 길은 절벽에 옆으로 난 鳥道를 따라 오르내리며 비스듬이 올라간다. 극히 위험한 길이었다. 길 아래는 수백 미터의 절벽이었다. 원효 당년에는 雲梯 危棧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랜 口碑傳承과 이 원효굴은 신기하게도 부합되었다. 이 굴은 悟道庵에 딸린

(40) 『매일신문』 1988년 11월 4일(금요일)자에 「元曉대사 得道석굴 발견」 제목으로 문화면 5단 머리기사로 보도됨.

수도 석굴이다. 이 千仞斷崖에 굴착 조성한 이 굴은 千古의 神祕에 가려 雲霧속에 감춰져 내려 왔다.

悟道庵은 1963년 이래 폐사가 되어 遺墟만 남아 있다. 절터에는 기와장과 주초와 맷돌바위 만이 널려 있고 빼어난 相好의 불상과 古幀畫가 당시까지 傳世되었으나 지금은 반출되어 찾을 길 없다.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南向으로 아늑한 이 名堂에 元曉가 悟道庵과 元曉窟(誓幢窟)에서 悟道했다는 전승은 사실로 전한다.

나. 石窟庵

팔공산 석굴암은 흔히 世間에서 제2석굴암이라 칭한다. 이 석굴암은 절벽에 동남향으로 판 동굴에 아미타여래 三尊像을 奉安했다. 이 석굴암은 경주 석굴암보다 반세기 앞서 조성된 것으로 토함산 석굴암의 모태다. 통일신라 초기 문무왕대에 開闢되었다.

통일전쟁에서 전몰한 수만의 전몰 蒼生을 극낙세계로 천도하기 위한 전후 시대적인 요구에 의하여 淨土宗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 상처받은 인민의 민심을 위로하고 순화시키기 위하여 淨土敎를 창시하여 이를 영도한 불교계의 민중불교적 지도자는 원효였다. 이 원효에 의하여 최초로 조성된 신라의 아미타 삼존상이 이 석굴암이다. 이의 조성을 발원하고 지도 감독하여 완성시키고 낙성법회를 주관한 고승은 淨土敎의 영도자 원효대사였다.

석굴암이 위치한 이 골짜기는 八公山 중에서도 가장 원효의 수도와 얽힌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 지점은 善山 桃李寺가 있는 고구리 불교 유입 경로와 이를 경주로 전달하는 중간 지점의 경로에 당한 거점이다. 석굴암 위에 悟道庵 元曉窟이 일직선으로 이 골에 놓여 있다. 이 고을을 한밤실(大栗谷)이라 한다. 지금도 이 고을 마을이 한밤실(大栗洞)이다.

원효가 출생한 동리가 押梁 밤실(栗谷)이었고 悟道한 골이 한밤실(大栗谷)이라 칭함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효가 八公山에서 수도생활 할 때 그의 學問과 道가 證得한 곳이 誓幢窟 悟道庵 石窟庵이 있는 이 한밤실 골짜기다. 여기서 大成한 원효는 그의 名聲이 全國을 떨쳐 大安大師의 천거로 東京 王京으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본다.

원효가 『金剛三昧經』을 국왕으로부터 받을 때 鄉里에 있다 하는 緇州는 名山 公山에서 받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 그는 公山 石窟庵 阿彌陀 道場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곳 公山은 元曉學의 배태기 성장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精進하여 巨匠이 된 元曉는 王京 芬皇寺로 移住하여 거기서 大著高論을 저술하여 그의 偉名天下를 聳動했다.

맺 음 말

이상에서 元曉의 修道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원효가 高僧으로 大成하는데 있어서 그가 受學하고 修道한 處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원효의 受學處를 考究하는 것은 즉 원효의 師資傳承 관계를 追究하는 作業과 일치한다. 그의 受業 師門을 4개처로 보았다. 즉 高大山 普德門下, 靈鷲山 朗智門下, 雲梯山 惠空門下, 大安大師門下로 밝혀내었다.

둘째 원효의 修道處로 百濟 疆域인 扶安 邊山 元曉房과 楸山 蘭若와 高燙城山 蘭若를 『신증동국여지승람』과 金石文에서 찾아 밝혀 보았다. 楸山은 元曉의 得道處로 傳來된 注目할만한 곳이란 것을 珍重視해 왔으나 그의 정확한 所在를 찾을 수 없었다.

셋째 원효의 住錫處로 芬皇寺 皇龍寺 穴寺 高仙寺 初開寺 娑羅寺 千聖山 擲板庵 內院寺를 정리했다.

넷째 원효의 受學 悟通 修道의 聖地로 원효의 고향에 자리잡은 靈山聖岳 八公山을 나는 중시하여 이곳에 傳來되는 원효의 수도처를 밝혀 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수확은 八公山 靑雲臺 悟道庵위의 絶壁에 人爲的으로 만든 誓幢岫 즉 世稱 元曉岫의 발견이다.

이 글은 八公山 道俗間에 傳承된 원효굴의 得道處를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은 傳承의 정확성과 부합성에 歡喜를 금할 수 없다. 원효의 得道處인 悟道庵과 悟道庵에 살 때 修道한 誓幢岫 그리고 그 아래 있는 石窟庵 이 세 곳은 八公山の

한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元曉가 大成하여 창도한 淨土敎의 최초의 造成 阿彌陀三尊像은 元曉가 시종 경영하고 지휘 감독한 불교의 一大 업적을 이곳 그의 得道處에 造成한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로써 원효의 수도처를 일단 정리해 본 셈이다. 전국에 편재 광포한 원효의 수도 주석처 중에서 이를 엄밀히 비판하여 그래도 사실에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을 취사선별정리 했다고 생각한다. 미진한 점은 추후에 다시 정리코자 한다.

討 論

(司會：金甲周)

司會：너무나 유명한 원효스님의 수도처에 대해서 현장감넘치게 문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金東旭：원효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청도 어디라고 서수생교수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文暲鉉：분명히 경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청도라는 얘기는 믿지 못합니다.

金東旭：그런데 그질이 어떤 일본사람과 무슨 관계있다는 얘기는 모르십니까?

서수생씨가 발표를 했다는… 그러니까 영남대학교가 있는 그 뒤라고 하던데…

文暲鉉：경산에 가면 설총이 공부하면서 살던 집터라고 전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총이 태어나서 공부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직접 그 곳 스님의 안내를 받아 가서 본적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총의 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석공주입니다. 경주 문천가의 지금 최주원氏 집이 있는 자리가 요석궁터입니다. 설총은 거기서 태어났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또 워낙 효자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의 소상을 만들어 놓고 설총이 조석으로 공양을 드리는데…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걸 볼때 가슴이 뭉클한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 하느냐면 그만큼 부자간에 못 잇기 때문에 그런 상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혈사옆에 설총이 살던 집터가 있음을 삼국유사에서는 전합니다. 또 설총은 신라에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이 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서 태어났고 무열왕의 외손으로서 6두품으로,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신문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살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金東旭：경주의 현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덧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경주 향교 들어가는 건넌편 거기에서 원효가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거기는 답사 하셨습니까? 거기있는 돌도 구경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暲鉉：원효가 남산에서 누가 자루가 끼인 도끼를 나에게 주느냐는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옷을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정교, 월정교 다리를 비롯한 몇개의 다리가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 그 터에는 돌들이 발굴되어 있는데 요석궁도 그 가까이 있으니, 그 어느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尹京烈：그곳엔 돌다리와 나무다리 흔적이 다 있습니다. 복원하기 위해 조사하다가

그 밑에서 나무다리의 흔적이 쪽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다리는 경덕왕 때에 놓은 월정교이고, 원효스님이 물에 빠진 다리는 나무다리일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金東旭 : 그 나무다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가는 기회가 있어 발견을 했는데… 사각형의 구멍이 돌에 뚫어져 있어서 거기가 돌아서 궁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서 거기에서 원효가 떨어졌다는 추정도 했습니다만, 남산쪽에서 왔다하면 원효가 어느 방향에 있었겠느냐. 결국은 혈사라는 곳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文曠鉉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相鉉 : 여러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혈사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혈사가 설총의 집 가까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곳에 혈사를 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논문에는 특히 팔공산 이 쪽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는게 최근에 서당화상비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원효의 신 자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바도 있지만 10여년 동안 원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지금 자료 특히, 팔공산 이쪽의 자료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원효의 오도는 해골바가지 물입니다. 이에 대한 장소는 서해안쪽으로 가다가 있습니다. 그곳이 '오도처' '득도처'입니다. 득도처는 분명히 나오기에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금석총량의 10C 금석문을 보면 직산 즉 오늘의 천안쪽인데 지리적 루트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0C 무렵에 대단히 중요한 성지로 인식되어서 거기서 대통이라는 스님이 3개월동안인가 수도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분명히 오도가 있는데, 선생님처럼 팔공산에 비정을 하고 찾아 본다는 노력은 대단히 좋지만,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 대한 선생님 그런 조사연구는 대단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원효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원효는 두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44세에 오도를 하는데 그 무렵까지를 수행기로 보고 그후를 교화기로 크게 나눈다면, 특히 수도처의 얘기는 수행기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수행기때 수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는 참선도 물론 했지만, 그 학문성을 보아야 합니다. 밤을 지새워 학문을 합니다. 그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이 팔공산 꼭대기 위에 올라 앉아서 책도 구하기 어려운데… 서당화상비에 뭐라고 나오냐하면 왕경 서북쪽에 조그만 절에서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곳이 초계사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자기가 태어난 집을 초계사라고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서당화상비를 분석해보면 초계사에서 현풍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고향에 있을때 무슨 금강삼매경론을 쓰게하고 등등의 이야기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석문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외에 또한 원효가 공부를 주로 적은 절에서 하였는데, 그곳이 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구해야하고 사실 그 당시는 아무리 경전이 유표된다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복사기도 없고 한 상황인데, 그 점을 염두에 뒀어 되지 않겠느냐, 특히 팔공산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그런 전설은 대단히 여러군데 전해지겠지요. 그런데 고향과 관련을 지을때는 역시 초계사가 바로 출생지에 있었다는 이런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볼때 문헌에 전해지면서 전설적인 자료, 시대를 올라가는 자료와 정말 최근 항간에 전해지는 자료, 이런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쪽에는 제가 조사한것 보다 더 많은 전설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文曠鉉 : 좋은 말씀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과학적인 방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계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서당화상비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지만, 거기서는 공부했다기 보다도 초계사를 자기 출생지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원효가 고승이 된 후 이름을 날렸을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다 하는 것은 조금...

金相鉉 : 그 부분은 서당화상비에 초계사에서 현풍을 떨칠때 9명의 제자가 있어서 크게 도왔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때 초계사는 상당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文曠鉉 : 그것은 원효가 상당히 유명해지고 난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 조그만 학승이 어떻게 절을 짓겠습니까? 남이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원효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지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崔光植 :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팔공산을 중악으로서, 중요시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있고 하나는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고 있지요. 통일전시기의 5악은 대체로 경주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며, 통일이후에야 소위 말해서 한반도 남쪽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리산, 태백산, 계룡산 등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원효가 수행을 할때는 통일이전이니까 팔공산을 중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文曠鉉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삼국사기 제사지에 있는 5악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정해집니다. 서악 계룡산, 남악 지리산은 백제의 영토이며, 북악 태백산은 고구려의 영토고, 동악 토함산은 백제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팔공산은

중악으로 기록한 것이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중악석굴에서 수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김부식이 말하기를 김유신전은 분명히 김유신의 증손자 김작천이 만든 것을 보고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일 이후에 중악이라고 했으니까 팔공산을 의미하는 것이 맞고, 김유신이 거기서 수도한 것을 보면 팔공산이 대단한 영산으로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하면 득도한다고 알려졌는 것 같습니다. 또 불교의 전래 코스도 선산지방에서 팔공산 거쳐 경주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공산이 불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국통일 그 전에는 중악이라고 하지않고 북악이리고 되어 있겠죠. 후에 워낙 유명해지니까, 중악으로 썼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司 會 : 예, 원효의 수도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이 있으리라 믿고 이는 내일 종합토론으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